



청송심씨 심벌마크

#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갑보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전화 : (02)2267-7857  
(02)2267-9339  
F A X : (02)2269-7755  
인쇄 : SNS인쇄  
02-2277-0245

제123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7년 1월 30일

## 新年辭



심갑보

대중회 회장

2017년 정유(丁酉)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24만 청송신문 일가 여러분의 강녕(康寧)과 가내(家內)에 만복(萬福)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대중회는 전국 종인(宗人)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고, 앞으로 더 큰 발전을 도모(圖謀)할 수 있는 기반(基盤)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새벽의 힘찬 울음소리로 어둠을 물리고 희망의 새 날을 밝히는 닭의 해를 맞이하여 송조돈목(崇祖敦睦)과 종재관리(宗財管理)에 더욱 힘쓰는 한편,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에 못다 한 숙원사업(宿願事業)들도 잘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첫째, 4세조 청성백·정안공 선조님의 재가(齋閣)를 금년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2014년도 11월부터 추진한 청성백(靑城伯) 선조님의 재가건립이 지난 2년 동안 10억 여 원에 달하는 기금(基金)을 마련하는 문제로 다소 지체(遲滯)된 면은 있었으나, 올해 안으로 반드시 완공하여 선조님의 추향(秋享) 때 준공식(竣工式)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심문을 명문가(名門家)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오늘날의 번영(繁榮)을 이루게 하신 청성백 선조님의 제향일(祭享日)에 눈비가 내릴 때마다 마을회관 방 한 구석에서 초라하게 봉행(奉行)하여 선조님에 대한 후손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다가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

만 마침내 재가를 마련하게 된 기쁨을 전국의 일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십시일반(十匙一飯) 후원해 주신 일가 여러분의 정성이 재가 건립의 원동력(原動力)이 되었으며, 성금을 보내주신 안효공종회를 비롯한 지파종회와 종인(宗人)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둘째, 위선사(爲先事)와 종재관리(宗財管理)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뿌리고육과 지파종회의 탐방 등을 통하여 일가 간의 화합과 유대관계(紐帶關係)를 더욱 돈독(敦篤)히 하고, 선조의 훌륭한 발자취와 전통이 후대(後代)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종사(宗事)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造成)하여 조상의 빛난 얼과 송조돈목(崇祖敦睦)의 미덕(美德)이 후손 대대로 계승(繼承)·발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심문의 총유물(總有物)인 종재(宗財)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을 위해 매년 전수조사(全數調査)를 실시해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지역유사(地域有司)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構築)하여 선조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위토(位土)와 5처 묘소 및 2단소 수호관리(守護管理)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년에 걸친 안성 3세조 청화부원군(靑華府院君) 위토(임야)에 대한 소유권과 보상금 관련 소송(訴訟)에서 대중회가 승소(勝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일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장학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익사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4회에 걸쳐

280명의 학생들에게 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성적이 뛰어난 학생의 향학열(向學熱)을 더욱 고취(鼓吹)시켜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중회의 어려운 재정(財政)에도 불구하고 장학사업이 점차 정착(定着)되어 가고 있는 것은 후손(後孫)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껏 장학금을 기탁(寄託)하여 주시는 지파종회와 종인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후학(後學)을 사랑하고 격려해주시는 독지가 여러분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장학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운용자금(運用資金)을 최대한 절약(節約)하는 한편, 수익사업 증대를 피해 장학기금(獎學基金)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措處)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송신문 일가 여러분! 지금까지 대중회에서 이룩한 모든 업적(業績)은 집행부(執行部)나 임원(任員) 몇몇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국 일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올해에도 명문가의 자랑스런 후예로서 송조돈목(崇祖敦睦)의 전통을 이어 받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따뜻한 정(情)을 나누면서 심문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나아갑시다. 지난해 일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 소망(所望)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丁酉 元朝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 甲 輔



### 일가여러분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도 家內 萬福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 문 : 宜斗 相泳 相殷 相郁 晶求 榮燮 龍俊 載鳴  
載榮 宇永 大平 漢俊 勳鍾  
명예회장 : 宜洛  
회 장 : 甲輔  
부 회 장 : 宜七 相和 相錄 相植 相國 贊求 一用 敏燮  
載冕 正輔 玄根  
감 사 : 相烈 周燮 賢輔  
집 행 부 : 彦泰(총무이사) 載緒(재무이사)  
甲學(문화이사)  
유 사 : 相哲 弘燮 遠燮 正秀 相國 哲裕 洪燮 載龍  
相國  
이 사 (가나다순)  
서 울 : 光輔 光燮 光燮 百燮 奉燮 三圭 相慶 相晚  
相瑞 相祚 相學 相翰 錫希 星求 成輔 映求  
英輔 玉仁 完圭 勇鎮 佑燮 愚龍 愚夏 雄燮

肱燮 元植 殷植 應錫 寅燮 載求 載金 載德  
載奉 在臣 載洪 正燮 種福 朱燮 俊輔 昌輔  
春輔 春植 忠澤 泰燮 亨求 勳輔  
경 기 : 康燮 光輔 揆一 明燮 文錫 相大 相烈 相英  
相雨 上殷 相贊 相許 相弘 相勳 瑞玲 錫鎔  
聖輔 洵燮 洋燮 良燮 良燮 彥村 榮燮 泳秀  
完輔 禹植 元輔 元輔 胤燮 應夏 載根 載萬  
載文 載聖 載烈 載玉 載浩 載勳 鍾洪 振裕  
昌輔 炯燮 興周  
부 산 : 萬仁 成燮 載德 載榮  
대 전 : 揆善 揆燮 宜哲 逸燮  
인 천 : 江水 慶燮 揆成 大植 相圭 相直 相振 錫文  
應茂 彝燮 宜杓 載錫 載善 在安 駿求 炯茂  
대 구 : 成澤 相燮 賢錫 護雄 勳  
광 주 : 揆大 相祐 愚慶 在均 在益 鍾德 駿燮 鎮植  
울 산 : 隆求 英求 應輔

강 원 : 東燮 東出 萬澤 茂植 相珉 相昭 相夏 成起  
愚弘 載求 在澤 載鉉 春燮  
경 남 : 揆實 東燮 茂燮 在模 載判 載華 點輔  
경 북 : 能光 相國 相東 相完 相禧 秀彥 琬澤 宜石  
載根 載德 在叔 載玉 載浩 載洪 花鮮  
전 남 : 棋官 棋柏 相佑 貞燮 正植 太守 行燮  
전 북 : 斗燮 相根 尙道 相哲 秀永 秀一 載根 載政  
載學 鍾根 鍾默 周燮  
충 남 : 甲澤 永鍾 雲澤 允澤 載令 載重 仲根 仲燮  
泓植 洪澤  
충 북 : 明彥 相鶴 相昊 成來 仁輔 載德 載福 載榮  
載赫 中來 興燮  
해 외 : 相昱 (캐나다)

2017년 1월 1일  
青松沈氏大宗會 任員一同





# 안성 3세조 청화부원군 (휘·龍) 위토 관련 소송결과 최종 보고

## 1. 안성 3세조 청화부원군 위토(位土)에 대한 소유권

3세조 묘소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6년여간 2회에 걸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실전(失傳)되었다가 1608년(선조41년) 무신(戊申)에 9대손 영의정 열(悅)이 경기감사 재임 시에 찾아서 다시 봉축(封築)하였고, 숙종19년(1693년)에 10대손 부제학 유(攸), 판중추 재(粹), 대사헌 단(檀), 헌납 사홍(思弘), 참지 평(桴), 감사 별(櫟), 지평 권(權), 유학 해(楷) 등이 서울과 시골의 모든 종족과 협조하여 산소를 개축하고 돈을 모아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3세조 묘소 및 위토는 전란(戰亂)으로 실전(失傳)되기도 하고, 봉사손(奉祀孫)이 정착하지 못하여 제대로 제사를 지내지 못해 관리가 되지 못하였으며 주요 관직에 있던 후손들이 보태어 위토를 마련하고, 안성지역에 거주하는 묘직이, 산유사 등을 임명하여 위토 관리와 제사봉행을 일임하고 이들을 중앙종회(대종회)의 대표유사(종유사, 도유사)가 총관(總管)하는 체제로 1640년대부터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 사례) 1922년도에 개최한 대종회 회의에서 5처묘소 위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2~3명씩의 산유사를 선임하였으며, 안성지역은 심상순과 심중목을 산유사로 임명함

5처산소의 위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종중의 명의로는 사정을 받을 수 없자, 당시 내부협관(현 내무부차관에 해당)을 지내고 대종회의 도유사(都有司)인 심상익(沈相翊)이 자신의 이름에다가 각 지역의 유사들(산유사, 향유사)과 지역 유력 종인 몇몇을 보태어 공동명의로 사정을 받는 방식으로 명의신탁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안성종회 부유사였던 심경주 종인은 위 토지사정 당시 자신의 할아버지(심충근: 안성 산유사를 지냄)와 큰할아버지(심효근) 등 7인의 공동명의로 사정(査定)되어 1962년 당시까지도 사정인 공동명의로 남아 있던 안성지역 위토(임야)를 그 실체(實體)조차 없었던 '청송심씨청화부원군과종중'이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여 정관과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토지소유증명원에 첨부하여 1962. 3. 29.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로(經了)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종회(대종회) 소유인 3세조 위토를 개인이 임의로 만든 청화부원군과종중 명의로 불법 이전한 것입니다. 전국의 일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성의 '청화부원군과종중'은 심경주 종인이 임의로 사용한 1962년도 이전에는 그 명칭을 사용한 전례가 없었던 실체가 없는 종중이며, 다만 안성지역종회가 존재하였을 뿐입니다. 심경주 종인을 비롯한 안성의 몇몇 종인들은 청화부원군과종중이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강변(強辯)하고 있으나 청송심씨종중의 계과는 1713년 계사보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었으며, 이후 발간된 1843년 계묘보, 1893년 계사보, 1920년 경신보, 1957년 정유보, 1958년 무술보, 2000년 경진보에도 시조부터 4세조(칭성백)까지는 계과가 없으며, 자손이 번창한 5세조(도총제공 등 7형제)부터 계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조부터 4세조까지는 형제, 또는 독자로서 이어져 전체 자손이 수십 명에 불과하여 계과를 나눌 필요가 없었고, 이런 이유로 4세조까지의 종재(위토)를 대종회에서 총괄 소유 및 관리하여 왔던 것입니다. 특히 3세조인 청화부원군은 독자(獨子)이므로 청화부원군파라는 계과가 당초부터 존재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고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계과인데, 1962년 심경주 종인이 임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등기업무 진행을 위하여 최초로 사용한 것입니다.

## 2. 사건의 발단

3세조 위토에 대한 유래(由來)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심경주 종인은 지난 수십 년간 안성지역 위토가 대종회 소유임을 인정하고 대종회 지시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위토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대종회가 납부하였으며, 청화부원군과종중 명의로 된 재산을 매각 시에는 사전에 대종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처분을 하였고, 심경주 종인의 주도로 청화부원군과종중 명의로 임야에 납골당을 건립할 때에도 대종회의 승인을 받아 건립하였으며 납골당 비문에 이 사건 토지가 대종회 소유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3세조 묘소와 위토는 청송심씨의 총유물(總遺物)로서, 중앙종회인 대종회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해 오면서 평온공연(平溫公然)하게 소유·관리해 왔으나 2013년 5월 위토 일부(임야 4필지)가 도로 확·포장 구간에 편입·수용되어 안성시로부터 보상금 316,936,000원이 나오게 되자, 경주종인을 중심으로 안성지역의 일부 종원들이 2005년도에 이미 3세조 청화부원군 양처(兩處) 재실(3층)이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별도로 배위 김씨 할머니의 재실을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종회에 입금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종회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수차 입금을 촉구하고, 경주종인 등과 회장단 간담회를 열어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

나 끝까지 거부하므로 결국 회장단과 총회에서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의하고 소송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3. 최종 소송결과

이번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대종회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청화부원군과종중과 심재연 종인 간 임야(도기동 산61)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청화부원군과종중의 존재와 3세조 위토 소유권을 인정해준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대법원 2007다4455)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종회는 단지 청화부원군과종중 명의로 되어있던 3세조 위토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옛날부터 청화부원군과종중이 존재하였다고 진술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던 것인데, 이번 사건에서 심경주 종인은 모든 재판부마다 이 대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마치 청화부원군과종중이 수백 년 전부터 실존(實存)하였고, 위토에 대한 소유권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 재판부는 대종회에서 위토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많은 자료들을 제출했음에도 위토 소유권 판단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종회는 2심(고등법원) 재판부에 대종회에서 1545년 이래 2000년 경진보까지 11회에 걸쳐 발간한 대동세보, 3세조 산소사적, 1890년~1900년도 황성신문 등에 게재된 대종회(종약소)관련 기사, 1920년대 대종회 회의자료 등 3세조 위토가 대종회 소유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여 민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소송 당사자인 청화부원군과종중 대표자(심호섭)의 적법성 여부에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청화부원군과종중이 총회와 이사회 등을 개최해 정관 개정, 대표자 선임 등을 했으나 20여만 명에 달하는 3세조 후손들에게 대부분 알리지 않고, 안성지역 인근의 수십 명에 불과한 일부 종인들만 모여 개최한 회의는 무효이며, 여기서 결의한 대표자는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결국 2014년 3월 청화부원군과종중 명의로 되어있던 위토(임야 19필지, 411,002㎡)를 대종회로 명의이전한 것이 불법이라며 재심을 청구한 사건 등을 대표권 없는 자가 제소한 소(訴)로서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이로서 이번 고등법원에서 주요사건(3건)에 대한 재판은 아래와 같이 모두 대종회 승소로 끝났으며, 3세조 위토(임야 19필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과 보상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사 건 명	관할법원	확정판결 결과	확정일자 (판결일자)
종중재산반환 (보상금 소유권 다툼)	서울고등법원	대종회 승소	2016. 5. 31 (2016. 5. 12)
보상금반환 (보상금 소유권 다툼)	서울고등법원	대종회 승소	2016. 11. 19 (2016. 10. 27)
소유권이전등기 (3세조 위토 소유권 다툼)	서울고등법원	대종회 승소	2016. 12. 15 (2016. 11. 24)

## 4. 맺는말

일부 종인에 의해 발생한 소송으로 일가 간 많은 갈등과 대종회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나, 대종회의 승소로 심문의 총유물인 위토를 몇몇 종인들에 의한 사유화로부터 보전(保全)될 수 있어 천만다행이며, 앞으로 이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 송조돈목(崇祖敦睦)과 위토 수호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종회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전국 청송심문 일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7년 1월 30일  
- 대종회 집행부 -



백설로 더욱 청아한 안성 청화부원군 묘소 전경(2017. 1. 12)





# 심민섭 화백 신년 특집 만화



심민섭 화백  
대중회 정보편집위원

민섭 화백께서는 종보의 양념적인 만화 "심영감"을 20년째 무료 봉사로 연재중이시다. 한국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에서 "가라사대", "심마니"라는 캐릭터로 시사만화를 그리며 한 시대를 풍미하기도 했던 심 화백님은 서울을 떠나 지금은 공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홍천에서 물소리, 산새소리를 벗 삼아 작가활동을 하고 계신다. 바쁜 작가 활동 중에도 심문의 소식지 종보(宗報)에 열심히 좋은 작품을 제공해주시는 민섭 화백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대중회 집행부 일동 -

## 살의유머

## 위층, 아래층

위층에 사는 여자가 언제나 늦게 귀가해서 구두를 집어던지는 버릇 때문에 아래층에 사는 남자는 잠을 잘 수가 없어 하루는 위층에 올라가서 불평을 했다.  
"당신이 구두를 벗어 놓을 때는 조용히 내려놓았으면 좋겠군요."  
위층의 여자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위층의 여자는 약속을 잊고 습관대로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졌다.  
한 짝을 던지고 나서야 아래층 남자의 항의가 생각나 한 짝은 조심스럽게 벗었다.  
다음날 새벽 아래층 남자가 뛰어 올라 왔다.  
"아니 구두 한 짝은 신은 채 잤소? 한 짝을 언제 벗을지 몰라 밤새 잠을 못 잤지 않소!"

- 대중회 관리부장 -



## 인생을람(人生乙覽)

[장자]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더 바라지 않는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먼 것과 가까운 것을 같이 볼 줄 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적다고 보지 않고 큰 것도 많다고 보지 않는다.  
물건의 양이 무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간의 흐름에 대해 알고 있다.  
오래 살아도 싫어하지 않고 짧게 살아도 더 바라지 않는다.  
시간은 멈추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찾다가 기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걱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분수는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제공: 상은 정보편집위원회 고문



종인 소개

# 후학교육 양성의 대학자(大學者)



### 심일용(沈一用)

대종회 부회장  
안성종회 회장  
청화부원군파종중 회장

◇ 경력

농학박사 / 국립 한경대 교수 / 안성제일감리교회 장로 /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도회 협동목사 / 미국인디애나 크리스천대학 / 신학석사

◇ 상훈

교육부장관 표창 / 황조근정훈장

2017년 1월 12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소재 3세조 청화부원군(靑華府院君, 휘:龍) 묘소 주변의 소나무에는 하얀 눈꽃송이가 예쁘게 피어 있었다. 철유 안성유사 내외가 미리 짜리비로 눈을 쓸어놓은 덕분에 큰 길부터 묘소까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

철유 안성유사를 비롯하여 일용 회장, 영섭 부회장, 흥주 총무이사 등 청화부원군파종중 및 안성종회 임원, 그리고 대종회 감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재서 재무이사 등과 함께 참배를 드리고, 청송심문 증흥의 기를 마련하신 선조님의 위업을 되새겼다.

이번 종인탐방의 주인공인 청화부원군파종중 및 안성종회 일용 회장은 대종회 부회장을 겸하고 계신데, 안성 소재 국립 한경대학교 교수로 30여년 간 재직하신 후 2004년 정년퇴임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독실한 신앙심과 고결한 인품으로 명망이 높은 자랑스런 종인이다.

### 대종회 부회장, 청화부원군파종중 및 안성종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안효공파 24세(섭자 항렬)이며, 본명은 명섭(明燮)입니다. 미국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처럼 농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전공을 바꿔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78년 국립 한경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안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후 대학에서 인재 양성에 힘쓰는 한편 청송심씨 안성화수회(현재의 안성종회)를 비롯하여 안효공종회, 대종회 등의 종사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당시 안성지역 종인들을 중심으로 열린 청화부원군파종중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작년 6월 전국 862명 종원(참석권 위임자 451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에서 또 다시 회장으로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청송심문의 종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국립 한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 개발연구소장, 교내 YMCA 지도교수 등을 맡게 된 1970년대 중반부터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40여명의 남녀 학생들과 함께 안성 소재 청송심씨 부락과 연관된 농촌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습

니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 '왕릉'으로 불리던 5세조 안효공 배위인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묘소가 있는 안성군 금광면 오흥리 능말 부락과 자매결연을 맺고, 청송심씨 종산(宗山) 약수터 진입로 확장 및 보수공사, 산불예방 방지벽 설치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종산 앞 마을인 도기리 부락의 진입로 확장 및 보수공사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이 당시 청송심씨 안성화수회 광택 회장과 삼한국대부인 묘소를 관리하셨던 권유 일가 등을 통해 대종회에 알려지면서 대종회 명구 회장, 상필 총무이사 등이 직접 안성에 내려와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하시며, 종무위원으로 위촉하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지금까지 안성 소재 3세조 청화부원군, 5세조 안효공 배위인 삼한국대부인의 묘소 관리 등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안효공종회 감사 및 이사, 안효공 묘소 정화사업추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당시 대종회 총무이사를 겸임하면서 동분서주(東奔西走)하셨던 상필 안효공종회 회장을 적극 보필해 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청송심씨 안성화수회 감사 및 회장단을 맡아 송조돈목(崇祖敦睦)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최근 3세조 청화부원군 위토가 대종회 소유로 최종 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작년 11월 종보의 "안성 소재 3세조 청화부원군 위토 관련 소송 결과 중간보고"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있지만,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안성 소재 청화부원군 및 배위 김씨 할머니의 묘소 및 위토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대종회로 명의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안성 지역 종인을 대표하여 대종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던 경주(庚周) 종인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 무산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5월 도로 확·포장 구간에 일부 위토(임야 4필지)가 편입·수용될 때 경주 종인의 주도 하에 청화부원군파종중 임시총회가 정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소집·결의된 것처럼 허위로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안성 시로부터 보상금 316,936,000원을 수령하고, 대종회에 입금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3년 여에 걸친 소송의 발단이었습니다.

사실 안성 지역 대다수 종인들은 선대(先代)로부터 종사에 관련해 온 경주 종인이 청송심씨 안성화수회 운영은 물론 대종회 등과의 모든 종중 관련 업무를 독점하고,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함에 따라 청화부원군 위토가 대종회 소유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2011년 발간된 「대종회 40년 약사」를 통해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비정상(非正常)의 정상화(正常化)'에 나서면서 경주 종인들로부터 많은 모함과 무고한 소송을 당하는 등 개인적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지만,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 향후 청화부원군파종중의 운용 방향과 대종회와의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시조(始祖)이신 문림랑공(文林郎公, 휘:洪孚)은 2세조 합문지후공(閤門祔候公, 휘:淵) 및 봉익대부공(奉翊大夫公, 휘:晟) 형제를 두셨는데, 3세조 청화부원군은 장자(長子)이신 2세조 합문지후공의 독자(獨子)로서,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청송심문의 70% 이상이 청화부원군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화부원군파종중은 이번에 법원에서 대종회 소유로 최종 확정 판결된 3세조 청화부원군 및 배위 김씨 할머니의 묘소 및 위토를 수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앞으로 대종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적극 협조하려고 합니다. 또한 대종회의 춘추제향(春秋祭享) 봉행에도 안성유사, 안성찬경회관 관장 등과 함께 성심을 다해 협력하려고 합니다.

### 대종회 및 전국 종인들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그동안 안성 거주 선의(善意)의 많은 종인들은 경주 종인 등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내부 갈등 및 분쟁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심문일가(沈門一家)로부터 적잖은 오해와 질책을 받았습니다. 대종회가 일가 간의 화합 차원에서 모든 것을 이번 소송의 승소로 마무리하고, 대종회와 지역종회 운영을 쇄신하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으며, 앞으로 일가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특히 감보 회장님을 비롯한 현 대종회 집행부가 청송심문의 숙원사업이었던 4세조 청성백·정안공 재각을 금년 11월에 준공(예정)하고, 종회탐방, 종인소개 등을 통해 전국 지역종회, 파종회 및 종인들과 적극 소통하며, 대종회 경비를 절감하여 장학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데 대해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전국 5처 묘소 및 위토(位土)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대종회 재정 확충은 물론 이번 소송에서 보여주었듯이 확고한 원칙에 따라 종재 관리를 하는 것은 귀감(龜鑑)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종재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활동이 미약한 지역종회 및 파종회 등의 어려움을 헤아려 앞으로 대종회가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여러 교육 자료와 선조 사료들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인탐방을 마치며...

사심(私心)이 앞선 일부 종인 등과의 갈등 및 무고한 소송 등으로 말할 수 없는 개인적 고초를 겪으면서도 오로지 청송심문의 후예라는 자긍심과 돈독한 신앙심으로 종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일용 회장님께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앞으로도 안성지역 심문일가의 화합 및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며, 정유년 새해 일용 회장님의 건승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12일

대담 : 상렬 종보편집위원(광운대 교수)  
배석 : 감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재서 재무이사



종인탐방 시 청화부원군묘소 참배 (좌로부터 재서 재무이사, 상렬 감사, 언태 총무이사, 철유 유사, 일용 회장, 영섭 부회장, 감택 문화이사)



대종회 회장단회의에서 일용 회장 안성소송 설명 장면

### 차기 종인 소개 예정

#### 2017년 3월(종보124호)예정

차기 종인 탐방 : 심현근 (충남, 대전, 세종종회 회장)  
탐방일 : 2017년 2월 11일(토)(종보 124호)예정  
탐방원 : 상렬 편집위원, 감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재서 재무이사



## 2016年 第2次 會長團會議 開催結果 報告

- ❖ 開催日時 : 2016年 12月 8日(木曜日) 11:00
- ❖ 開催場所 : 동보성 증식당(서울 중구 퇴계로 18길5)
- ❖ 参席人員 : 총 16名 중 12명 참석
- ❖ 参席者 : 회장 - 갑보  
부회장 - 상화, 의철, 상록, 상식, 상국, 친구, 일용, 민섭, 재면  
감사 - 상렬, 주섭
- ❖ 陪席者 : 언태 총무이사, 재서 재무이사, 갑택 문화이사, 관리부장

대종회는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3여 년 동안 진행해온 안성 소송건과 청성백 재각건립 추진사항 등 현안을 보고하고, 재산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관 일부개정 및 청주 4세조 배위(청주송씨)가 모여져 있는 잠두봉 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다음과 의결하였다.

부의안건	의결내용
정관 일부개정에 관한 건	수익사업을 통하여 대종회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재산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규정(제14조 제2항 단서조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내용</li> </ul> 제14조 제2항 단서조항인 재산처분권에 대한 회장단 회의 위임사항에 “收益事業에 必要한 경우”를 추가 함
청주 잠두봉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건	청주 4세조 배위가 모여져 있는 위토 8필지(21,453㎡)가 포함된 잠두봉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청송심씨대종회는 4세조비(청주송씨)의 묘소가 보존될 수 있도록 청주 잠두봉공원 조성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청주시에 전달하기로 의결

부의안건	의결내용
부회장 사직서 수리 및 선임에 관한 건	안효공종회 심명옥 회장이 제출한 대종회 부회장직 사직서에 대하여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임에 심현근 대전·충남·세종 종회장을 선임하기로 의결
장학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건	장학위원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한 아래 장학규정을 금번 회장단 회의에서 추인하기로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개정내용</li> </ul> - 대종손 자녀에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신청서와 추천서 제출기한을 2월 말일과 3월 31일까지로 각각 변경(종보 122호 참조) - 추천기관에서 선발된 학생 중 매년 7월경에 실시하는 뿌리교육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



회장단 회의 개최 장면

## 대종회 주관 5처 2단소 제향봉행 헌관 분정(分定) 안내

대종회 주관 5처 2단소 [(시조(휘:洪孚). 2세조 함열 함문지후공(휘:淵). 3세조 안성 청화부원군(휘:龍). 4세조 연천 청성백 (휘:德符). 4세조 청주 청성백 초배위(淸州宋氏). 2세조 철원 봉익대부공(휘:晟). 4세조 덕천 악은공(휘:元符)]제향봉행과 헌관 분정은 대종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종보(재94호, 2012년 3월 30일자)를 통해서 既 공지한 바 있는 5처2단소 헌관 분정(分定)

에대해 재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종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5처2단소 초헌관은 대종회 회장이 되며 대종회 회장이 참례하지 못하거나 사양할 시는 대종손(봉사손)이 초헌관이 되며 대종손(봉사손)이 참례치 못할 경우 대종회 회장이 제향에 참례한 종인 중에서 초헌관을 분정 합니다. 또한 아헌관, 종헌, 집사, 대축 등도 제향에 참례한 종인 중에서 대종회 회장이 분정하며 대종회

회장이 참례하지 못할 경우 대종회 상임부회장이 분정을 하게 됩니다.

분정사항은 제향 봉행시간 15분전에 대종회 총무이사가 발표를 하고 분정을 받은 諸헌관과 집사, 대축 등은 제복을 갖추고 묘전에 도열합니다. 제향은 대종회 총무이사가 집례를 맡아 봉행하고 대종회 활기(笏記)에 의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종회 -

## 제례의 의미

조상에 대한 숭양심과 추모에 뜻을 두고 기념하는 것이 제사이므로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끔 해주신 조상의 은혜에 성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추모의 정을 지녀야 한다.

수백 년 동안 4대봉사(四代奉祀)로 종손집 장남이 제사를 지내왔으며, 이것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어 온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밑바탕에 배어 있는 참다운 정신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충실함이다. 따라서 진정한 추모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검소하고 담박·단정한 제수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

제사는 다례(茶禮), 기제(忌祭), 묘제(墓祭) 등이 있다.

### 가. 다례(茶禮) : 정월 초하루와 8월 추석

① 설 : 정월 초하루 아침에 선영에 세배를 드리는 것이다.

주과포와 떡국으로 상을 차리고, 모든 자손이 참신(參神)한 후 종손과 집사만이 사당 안으로 들어가 강신(降神)을 하고 종손이 헌잔(獻盞)을 한다. 그리고 유식(侑食 : 음식을 권함)으로 시간을 조금 지체했다가 집사가 철시(撤匙 : 수저를 내려놓음)하고 일용 재배 후 사신(辭神) 음복(飮福)의 순으로 행한다. 신주(神主)가 없으면 지방(紙榜)으로 대신하며, 일반 제사와 다른 점은 무축단잔(無祝單盞)이라 하여 축문을 읽지 않고 술은 한 번만 올린다.

② 추석 : 한가위 또는 중추절(仲秋節)이라 한다. 음력 8월 보름이면 더위는 물러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1년 중 가장 풍성한 때이다. 추석날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조상님께 차례를 올린 후 성묘를 한다. 설 때와 같이 축문을 읽지 않으며 단헌으로 헌작을 하고 햇곡식으로 지은 송편과 햇과일을 올린다.

### 나. 기제(忌祭) : 고인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전 날 저녁에 제사준비를 하여 자시(子時 : 밤 11시에서 ~ 새벽 1시 사이)에 지내는 것이 관례이나, 요즘은 저녁 시간에 맞춰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돌아가신 날에 지내야 한다.

기제의 대상은 4대 즉 고조까지를 종가에서 지내고 5대조 이상은 날짜를 정하여 시향(時享)으로 지낸다.

주자가례(朱子家禮)는 기일을 맞이하는 신위만을 모시며 정자제례(程子祭禮)는 양위분을 모시는데, 일반적으로 고비(考妣)를 합설로 하는 경우가 많다.

### 다. 묘제(墓祭) : 조상들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대개 한식(寒食)이나 10월에 날짜를 정해서 지내며, '시제(時祭)' 또는 '시향(時享)'이라고 부른다.



종회탐방 시리즈 (31)

# 진천 월촌종회(鎭川月村宗會) 탐방



심상영

진천월촌종회 회장

청송심씨 정언공과 월촌종회는 12世祖 절충장군(折衝將軍) 충의위(忠義衛) 휘:인희(諱:仁禧) 증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참의공(兵曹參議公) 후손들이다. 아버지는 正言公(諱:峯) 字는 천로(天老)이시고 號는 우청(雨晴)이시다. 공의 휘는 인희(仁禧)요 자는 희지(喜之)이며, 1544년 甲辰(중종39년) 9월 21일생이시고, 1604년 甲辰(선조37년) 2월 12일 회甲 되던 해에 卒하시었다.

공의 선친이신 정언공(正言公)께서 사간원(司諫院)에 근무당시 정당한 간언으로 항변하다가 죄를 얻어 단성에 귀향 갔다가 벽동으로 옮겨지게 됐는데 길이 양재역을 경유하여 지나 갔다. 정언각(鄭彦愨)이 공에게 원한을 갖고 있었는데, 평소 주홍색을 써서 시제(詩題) 쓰기를 좋아함을 알고 언각이 나라를 원망하는 글을 만들어 붉은 글씨로 써서 공의 필적인양 꾸며 역의 벽상에 붙인 정미사화(丁未士禍-1547년 명종2년 양재역벽서사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진 고문을 받아 옥중에서 애석하게 別世 하시니 享年 35歲이시다.

공은 당시 어린 나이에 세분의 형님들과 함께 옥중에 갇혔다가 얼마 후 나이가 어리므로 형님들 보다 먼저 옥중에서 풀려났으나, 家産은 몰수당하고 집안이 풍파 되어 형제들이 제각각 흩어져 갈 곳이 없어 삶이 막막하던 차에 유모에게 인도되어 忠淸道 鎭川 淸두메산골에 숨어서 어린 시절부터 살다보니 자연히 세장지(世葬地)가 되었다.

明宗조가 歿(歿)하고 宣祖께서 등극한 후에 울곡이이(栗谷李珥)의 상소로 선친이신 정언공(正言公)께서 신원(伸寃)되시니, 이때부터 관에 무반(武班무관)으로 출사 하시어 공은 노성(魯城논산)현감을 시작 공주진관병마사(公州鎭管兵馬使)를 역임하였고, 영성(寧城: 지금의 천안) 온양군 牙山郡守 등 지방 수령을 역임하시었다.

公께서 사후 1843년(헌종9년)에 부친이신 정언공이 을사명현(乙巳名賢)으로 명예가 회복되어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증직되고, 위로 두분의 형님과 함께 추증되시어 증 통정대부 병조참의(贈 通政大夫 兵曹參議)이시다.

配位이신 숙부인의령남씨(淑夫人宜寧南氏)는 군수를 역임하신 휘:전(諱:釜)의 따님으로 三男二女를 두셨는데, 장남은 휘:탁(諱:濯)이요 자는 사결(士潔)이시며 관직은 건원능 참봉(建元陵 參奉)이요.

둘째는 휘:옥(諱:沃)으로 자는 여계(汝啓)이시며 향시 진사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진사 참봉(成均館 進仕參奉)이요.

셋째는 휘:식(諱:澁)으로 자는 명서(明瑞)이시며 관직은 충의위(忠義衛)이시다.

본 종회는 1970년도 까지는 장남인 휘:탁(諱:濯) 둘째인 휘:옥(諱:沃) 셋째인 휘:식(諱:澁) 3파로 구성 되었으나 지금은 둘째인 휘:옥(諱:沃)의 후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고문: 관섭/ 재덕, 회장: 상영, 부회장: 상호/ 효섭/ 재욱, 감사: 재성, 총무: 은섭, 회원은 41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1942년 10월 30일에 종회를 설립하여(회장: 상은, 고문:상협/일택, 회계:호택, 서기:광섭, 평의원:상국/영섭/구섭) 8명의 선조님들로 구성하여 종회회원님들을 찾아다니며 백미1두씩 거출하여, 첫해에는 15명의 회원이 (백미1, 가마5두)를 거출하고, 3년에 걸쳐 회원 50명에 자산도 백미 30가마로 늘어 종회가 잘 운영되었다. 그러나 1950년 종손이며 회장인 상은 일가의 광산사업 부도로 종토가 모두 경매에 넘어간 것을 법정소송을 하여 산 7만평을 다시 찾고 종토도 조금 장만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종회 연중행사로는 매년 1월 1일 정기총회를 열어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신년새해를 맞이하여 서로의 덕담과 격려를 하면서 올해는 더욱 송조돈목을 돈독히 할 것을 다짐하며 종회 연중계획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시향일은 매년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로 정하여 후손들이 모두모여 지내고 있으며, 종회원 모두 2~3년에 한번 씩 시조묘소를 비롯하여 함열, 안성, 연천, 수원, 파주 등 선조묘역을 순회참배하고 있다.

### 종회의 계획은?

아직 입야와 답, 토지 일부가 종회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종회명의로 이전하는 것과 입야 전부를 측량하여 경계를 정하고 시향제단을 새로 건립 및 주차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종회자랑

효섭 일가께서 “나의 조상님”이란 책을 2011년 발간하였는데 무려 5년간 전국을 다니면서 수집하여 1世祖부터 24世祖까지의 묘소위치와 시향일자 기록 되어 있고, 선조님이 관직에 계시면서 받으신 교지내용 묘소전

경 비갈 글씨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책자로 전국 종인들께서 읽어 보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 일가 여러분에게

재각건립에 대하여 4世祖 靑城伯 선조께서는 일가 모두가 아시다시피 문화좌시증을 역임하시었고, 한양의 궁궐과 종묘 영건을 총괄하시었으며, 슬하에 7男을 두시어 다섯째 영의정 온 을, 손녀 소헌왕후, 손자 영의정 공숙공을 비롯하여 자손이 모두 높은 관직을 두루 걸쳐 오늘날 우리 심문을 크게 번성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한삼족의 반역에 올려놓으신 분입니다. 재각이 없어 후손으로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었는데, 이번 대종회에서 청성백 재각건립을 추진하는데 헌성금이 저조한 것을 보며 재정이 조금 나은 종회에서 좀 더 성의를 보이신다면 재각건립은 성공적으로 건립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종인과 종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에게

정기총회는 회원들이 많이 오시는데 매년 시향 날을 보면 젊은이들은 참석을 안하는 편입니다. 선조님들은 6.25전쟁 때도 이곳 월촌종회에서 문백(十二世 折衝將軍 諱 : 仁禧) 묘소까지 20km나 되는데도 해가 뜨기 전 아침을 먹고 시향제물을 지게에 짊어지고 문백까지 걸어가서 시향을 올리고 밤늦게 이곳까지 걸어 오셨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모르고 지내는것 같습니다. 금년도 시향에는 많은 젊은이 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 대종회에 건의

대종회에서 뿌리교육을 통하여 교양강좌 및 시조참배 행사를 하는 사업은 젊은 후손에게 매우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9회 뿌리교육 및 교양강좌를 보면 장학생으로 하는 것도 좋는데 앞으로는 각 종파에서 뜻이 있는 젊은이를 1명씩이라도 참여시켜 종회에 돌아와 보고 느낀 소감문을 발표하여 일가들이 선조에 대하여 좀더 알고 자긍심을 갖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1월 1일

글 : 갑택 문화이사

배석: 언태 총무이사, 재서 재무이사

### 차기 종회 탐방예정

탐방종회: 울산 내금위종회

탐방일: 3월초

탐방원: 동섭 편집위원, 갑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재서 재무이사



월촌종회에서 재각헌성금 대종회총무이사에게 전달장면



1월 1일 정기총회 장면



종시조 (12세조) 절충장군(휘:인희)비



◎ 재각건축 계약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지급시기	비고
계약총액	658,922,000		관리사/조경공사 제외
계약금	197,000,000	계약 체결 시	기 지급
중도금	1차 197,000,000	재실 기와 시공 시(4월)	
	2차 197,000,000	담장 / 삼문 착공 시(8월)	
계	394,000,000		
잔금	67,922,000	11월 3일	재각 준공식 (청성백 추향일)

◎ 재각건립자금 수지내역

(2013년 ~ 2016년) (단위: 원)			
구분	내역	금액	비고
수입	1) 외부(종인·종회)	513,537,451	① 증여세 약 5천5백만원 미반영
	2) 자체(대중회)출연금 2억원 중 1차 출연	100,000,000	② 통장이자 반영 ③ 외부 현성금은 재실건립기금 반영
	수입 계	613,537,451	
지출	1) 계약금	197,000,000	1) 계약금 지출금 중 1억(대중회 자체자금)은 건립기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운영자금구좌에서 직접 지급하였음
	2) 설계비, 토목공사비	30,000,000	2) 1차 중도금(4월) 지급 시 대중회 자체자금 1억원 추가 출연 예정임
	3) 감독비 (50%)	10,000,000	
	4) 증여세 등	54,019,450	
	지출 계	291,019,450	
잔액	통장잔고(2016.12.31 현재)	322,518,001	

\*대중회자체 재각건립출연금 2억원 중 잔액 1억원은 2017년 4월 1차 중도금으로 지급

임원(이사)회비 미납내역 (2016년 12월 31일 기준)

회비 2년 미납	경기	성보, 재훈, 재욱	회비 1년 미납	강원	춘섭	인천	상직, 경섭
15, 16년 이사회비 미납명단	경북	수언, 화선	16년 이사회비 미납명단	경기	상열, 상훈, 양섭(과천), 영수 재성, 창보	전남	상우, 태수
	광주	규대		경남	재관	충북	홍섭
	서울	백섭, 응석, 태섭, 영규, 성규		서울	광보, 상서, 우하, 재홍, 훈보		
	전북	재근					

\* 회비 미납 이사님은 2017년 3월말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는 정관에 의거하여 2017년 4월 정기총회 시 임원에서 제외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찬조현황 2016. 11. 22 ~ 2017. 1. 30

지로 중보찬조 1만원

재수 정보 진택 창용 상욱 상수 재석 규주 갑식 흥구 태섭 청택 두섭 연보 의 민섭 성보 준보 상익 재돈 상호 재갑  
홍섭 홍섭 세근 상하 윤섭 현섭 재희 상규 광평 상병 태규 우인 건섭 명보 용보 안수 재만 재복 민섭 상한 양진 창용  
길섭 우정 재도 영보 광택 세택 민섭 경식 재준 규양 상석 봉현 종선 상현 명택 상만 천보 상화 대택 현구 한욱 재춘  
수길 재혁 명섭 용택 동섭 규민 재후 상복 상을 재이 정택 재주 철구 인섭 유섭 도섭 재춘 영식 도운 백규 완섭 상덕  
재현 규섭 일석 기섭 상진 민섭 영섭 재경 익명 5명 의식 영희 상은 현태 할래 문식 명섭 정택 규정 상은 의철 재환  
남식 항석 상훈 정용 이섭 기관 재희 성보 문섭 학영 동출 상희 재운 상소 종태 재철 재용 현보 명홍 상천 태섭 해섭  
선래 상동 수영 태보 윤섭 홍섭 재희 기승 용섭 동섭 영만 원석 진유 상원 상학 광보 상원 상훈 재영 일섭 성보 은섭  
상선 삼복 태식 상호 기섭 상호 상현 종래 묘택 광보 홍섭 명섭 재형 상은 정구 광보 병식 창섭 재필 재을 상인 상윤  
윤도 재운 상영 경용 정규 재호 우대 재운 상만 응진 이섭 예섭 계택 재근 기섭 재만 평택 동섭 양섭 재영 세택 원보  
상래 재식 상학 재철 재훈 광석 갑진 상화 재명 상학 익명 2명 재안 중섭 운택 재학 삼복 한진 용식 종택 상철 기석  
순보 육택 상호 백섭 재수 우삼 우섭 기보 정택 재진 재금 건용 홍섭 상천 순보 경식 재국 정선 달섭 진용 상선 재경  
상부 삼덕 흥식 재선 규원 훈 재수 춘섭 응진 재익 영섭 광철 영보 정섭 재진 영재 정학 대식 재실 상욱 길동 재화  
상태 상집 문수 상덕 상용 재규 길섭 우문 재춘 상훈 광현 성보 원보 능운 호섭 옥섭 석택 우남 진택 상덕 상우 호섭  
찬식 상근 대응 무명 1 우관 정자 흥식 철보 선보 상후 태섭 학민 재홍 춘택 진호 정진 상순 광석 재원 상권 재복  
윤섭 행근 훈중 원중 재일 우신 호조 수보 상민 기연 재섭 상준 승식 유섭 정철 해섭 재현 재용 창호 란섭 인섭 순식  
성섭 상의 주섭 재운 언촌 규문 규환 종식 상봉 재규 영섭 춘식 성규 상홍 재철 원택 진석 상기 태섭 원택 심강 이섭  
규승 원섭 정석 우용 태식 종근 재기 종석 준식 보성 순보 규대 재동 한석 무식 재운 화섭 재하 양섭 규성 상철 영무  
재정 창기 상돈 재운 원식 석란 상규 수용 판규 규표 경규 상훈 창태

임원회비

16년 부회장회비 300,000 상화 부회장, 민섭 부회장, 의철 부회장  
친구 부회장, 재면 부회장  
16년 감사회비 200,000 현보 감사  
15년 이사회비 50,000 (서울)충택  
16년 이사회비 50,000 (서울)충택, (전북)수영, (충북)재덕, (충북)재무  
(서울)성보, (대전)현근, (진주)동섭, (경기)갑택  
(강원)동출, (인천)강수, (경기)연태, (경북)완택  
(경기)광보, (충북)상학, (경기)상호, (광주)진식  
(인천)재선, (전북)정수, (대구)호홍, (부산)성섭  
(전북)상철, (경기)재호, (충남)갑택, (충남)영중  
(부산)재덕, (서울)우용, (서울)재신, (서울)상조  
(전남)정섭, (경북)상동, (전북)재학, (충북)인보  
(서울)완규, (전북)수일, (경남)규실, (경남)점보  
(경기)윤섭, (전북)종근, (충남)윤택, (전남)행섭  
(서울)상만, (전남)기관, (충남)운택, (경남)무섭  
(김포)상우, (서울)재규, (충남)홍택, (강원)상소  
(김포)원보, (강원)광섭, (인천)의표, (경북)능광  
(경기)명섭, (경남)재화, (양주)홍섭, (인천)준구  
(인천)규성, (전남)기백, (서울)형규, (서울)원식  
(김포)재근, (강원)우홍, (충북)종래, (인천)이섭  
17년 이사회비 50,000 (진주)동섭, (충남)종근, (전북)주섭, (강원)우홍  
(인천)재석, (서울)상경

재각현성금

300,000,000 안효공파중회(회장:명욱)  
10,000,000 정이공파어버리중친회(회장:석문)  
3,000,000 사복시정공중회(회장:재봉)  
1,000,000 (구미)재동, (구미)규진  
진천월촌중회(회장:상영)  
300,000 (서울)재량  
200,000 진천월촌중회(회장:상영)  
안효공파어수신기동중중회(회장:재표)  
100,000 (경기)진섭, (대구)상환

중보찬조

1,000,000 이세기  
300,000 청주중회(회장:재룡)  
수운관공파마산소중중(회장:규실)  
진천월촌중회(회장:상영)  
200,000 (부천)범택  
120,000 (서울)재복  
100,000 신천공파추천대선중회(회장:상소)  
(인천)효섭, (강원)재봉  
(전남)갑채  
60,000 (전주)재용, (서울)혁규, (장성)상모  
(경북)의보, (경기)훈, (서울)상경  
30,000 (서울)점구, (서울)재운, (세종)찬보  
(경북)무수  
20,000 (대구)호홍

장학찬조

500,000 (서울)춘보  
수운관공파마산소중중(회장:규실)  
200,000 진천월촌중회(회장:상영)

중보·장학찬조 50만원 이상 찬조시 2회 사진개재

				
수운관공파마산소중중 (회장: 심규실)	심감재 (전남 보길도)	심준보 (대중회 이사)	카나다중회 (회장: 심상욱)	심현섭 (금당산중회 고문)
중보찬조 8십만원 2016년 12월	중보찬조 5십만원 2016년 12월	장학·중보찬조 6십만원 2016년 11월	중보찬조 5십만원 2016년 11월	중보찬조 1백만원 2016년 10월

재각 현성금 1천만원 이상은 준공시까지 사진개재

											
정이공파어버리 중친회 회장 (석문)	안효공파중중회 회장 (명욱)	할방공파중중회 회장 (규일)	곡산공파중중회 회장 (상영)	창순공파중중회 회장 (주택)	이경공파중중회 회장 (주택)	인수부운공파 함흥중중회 회장 (장식)	안효공파 대중회 이사 (성보)	안효공파 대중회 이사 (광섭)	안효공파 대중회 고문 (재영)	안효공파 대중회 회장 (갑보 개인)	안효공파 공숙공중중회 회장 (용섭)
1천만원 2016년 12월	3억원 2016년 12월	1천만원 2016년 11월	1천만원 2016년 11월	1천만원 2016년 11월	1천만원 2016년 11월	1천만원 2015년 8월	1천만원 2015년 7월	1천만원 2015년 2월	1천만원 2015년 2월	1천만원 2015년 1월	5천만원 2014년 11월



**2016년도 정기 증보편집위원 회의 개최**

일 시 : 2016년 12월 3일(토) 오전 11시  
 장 소 : 대중회 회의실  
 참 석 : 상화부회장, 편집위원(동섭, 수영, 상렬, 성기, 광섭, 재석, 왕섭, 규선)

결의사항  
 증보규정 일부 개정(제11조 4항 추가)

현 재
제11조(광고활용)광고란 활용은 다음과 같다. 1) 종인이 사업이나 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을 광고 할 수 있다. 2) 이를 이용할 때에는 광고비를 받을 수 있다. 3) 제2항에 의거 발생한 수익금은 증보 운영비로 사용한다.
개 정
제11조 (광고활용)광고란 활용은 다음과 같다. 1)항~3)항 : 현행과 같음 4) 규격별 광고 금액은 아래와 같다.(신설) [8면광고] 1. 가로 : 100mm x 75mm= 100,000원 2. 가로 : 100mm x 150mm= 300,000원 3. 가로 : 150mm x 225mm= 500,000원 4. 가로 : 240mm x 750mm=1,000,000원 ※ 제11조 (광고활용) 1)항 광고 해당내용에는 종회의 총회광고도 포함되며 시행일자는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개최 장면

**청송심씨 풍덕공파 6대손  
 가선대부 마천종회 정기총회**

청송심씨 풍덕공파 6대손 가선대부(휘:일우)공 마천종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일시 : 2017년 3월 4일(토요일) 12시
2. 장소 : 경북 예천군 유천면 마천리 마을회관
3. 안건 : 2009년도 총회에서 결의된 의안에 대한 추진건

내용 : 1. 종중 명칭 결정, 정관 승인의 건, 임원 선임의 건, 소송대표자 선임의 건.  
 2. 종손 선조묘소 관리의 건.

\* 불참시 회의 전까지 위임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송심씨 풍덕공파 6대손 가선대부 (휘:일우)공 마천종회 연고항존자 심 재 두

**대중회 2월 주요 일정**

일 자	내 역	참 석
2월 11일(토)	종인탐방(심현근 부회장)	상렬편집위원, 집행부
2월 24일(금)	고문단회의	고문
2월 28일(화)	정기감사(회계 및 재각자료)	감사

**울산 청송회 임원개선**

회장 : 인옥

총무 : 규백

**2017 정유년(丁酉年) 대중회 주관 춘계 향사일 안내**

世	휘(諱)	양 력	음 력	요일	世	휘(諱)	양 력	음 력	요일
시조 (始祖)	文林郎公(諱:洪孚)	04.05	한 식	수요일	四	靑城伯(諱:德符)	04.11	03.15	화요일
	中臺山墓所	04.05	한 식	수요일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04.13	03.17	목요일
二	閭門氏候公(諱:淵)	04.07	03.11	금요일		岳隱公(諱:元符)	04.21	03.25	금요일
三	靑華府院君(諱:龍)	04.09	03.13	일요일		王后	昭憲王后(세종비)제4대	04.28	양력고정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04.09	03.13	일요일	仁順王后(명종비)제13대		04.23	4월넷째	일요일
					端懿王后(경종비)제20대		03.26	3월넷째	일요일

**심갑보 대중회 회장, 인간경영대상 특별상 수상**

심갑보(沈甲輔) 청송심씨대중회 회장(삼익THK주식회사 상임고문)은 지난 12월 15일 서울 노보텔엠버서더호텔에서 (사)HDI 인간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2016 HDI 제2회 인간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HDI 인간경영대상은 우리 사회에서 인간중심 경영에 솔선 수범하고 있는 기업 경영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심갑보 회장은 영세 수공구 제조업체를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 중견상장, 첨단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특히 인간중심의 경영과 노사관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인간경영대상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갑보 회장님

**6世祖 공숙공(恭肅公) 휘:澮 유허 중수비(遺墟 重修碑) 제막**

2016년12월20일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마을에서 공숙공종중 응섭 회장을 비롯한 타 지일가 20여명과, 고달면장 등 현지일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世祖 공숙공(恭肅公)유허 중수비 제막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공숙공(恭肅公)은 휘:회(諱:澮)이며 안효공(安孝公)의 둘째 아드님으로 세종대왕비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아우이시다.

무술옥사가(戊戌獄事)일어났을 시, 공숙공은 첫돌도 되지 않은 찌꺼기 갓난아기였는데 세종대왕비(世宗大王妃) 소헌왕후의 배려로 유모의 등에 업혀 남하하여 경북 선산 땅에 강주부거민공(康主簿居敏公)의 집에 양자가 되었다.

공은 강주부공에 양육되면서 경북 선산군(善山郡)과 이곳 곡성군(谷城郡) 고달(古達)에서 수학하시다가 1451년 34세에 처음 둔녕주부에 등용되었는데 당시 공께서 학문에 정진하신 곳으로 공의 열이 서



공숙공(諱:澮)선조님의 음덕을 기리며 묵념

려있는 곳이다.

이 비각은 공의 업적을 길이 보전하기 위하여 이곳 고달(古達)지방에 사는 17대 손 상호(相浩) 외 일가들이 1959(乙亥)년 산속에 있는 유허비를 이곳으로 옮겨 손수 비각을 제작(製作) 건립하여 보존하다가 비각이 낡아 공숙공종중에서 비각과 유허 중수비를 새로 세워 오늘 제막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공지사항**

- 1) 2017년도 장학금 지급은 7월 청송에서 실시하는 뿌리교육 참석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장학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 각종 찬조금 명세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필히 대중회 재무이사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모범 종인 소개를 위한 종인탐방이나 종회활동을 전국 종인들에게 소개하는 종회탐방을 희망 시 대중회 갑택 문화이사에게 신청바랍니다.
- 4) 2000년도에 발간된 대동세보(경진보)를 대폭 할인하여 1질(총 11권)에 6만원에 보급합니다.
- 5) 대중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중 회비가 미납되신 분들은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말까지 미납 시 정관에 의거 임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7년 임원 명단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6) 2017년 지로증보찬조 용지는 3월, 9월(연2회) 증보와 함께 발송합니다. (찬조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발적 참여임을 알려드립니다)
- 7) 지난호(122호) 정정사항 : 2016년 4세조 추향 헌금내역 中  
 신천공파춘천대선종회 20,000 => 200,000

**송금안내**

청성백 정안공 재각건립 헌성금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59-0778-41

**송금안내**

임원회비· 증보찬조· 장학찬조· 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07-5873-71